



사진 / 유에스여행사 제공

해랑 VS 케이셔틀

외국인을 위한 추천 한국여행

한국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부한 나라다. 하지만 방한한 외국인의 주요 여행지는 명동, 동대문시장, 고궁, 남산 등 서울의 명소 일색이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숨은 경승지를 들르지 않는 외국인이 훨씬 많다는 얘기가. 그런데 타국에서 온 친구가 짧은 시간 한국의 곳곳을 둘러보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을 위한 여행 상품인 '해랑'과 '케이셔틀(K-Shuttle)'을 비교했다. 글 박상현 기자



사진 / 코레일관광개발 제공



해랑과 케이셔틀의 기본 개념은 동일하다. 며칠 동안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하며 전국을 일주한다는 것이다. 다만 교통수단이 다르다. 해랑은 기차, 케이셔틀은 버스이다. '해와 더불어 금수강산을 돌아본다'는 의미의 해랑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관광열차로 2008년 11월 첫선을 보였다. '철도 위의 크루즈'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호화로운 시설을 자랑한다. 열차 내부는 객실과 라운지로 꾸며졌으며, 식당차 '선라이즈'가 있다. 승무원은 라운지에서 아카펠라와 마술 쇼를 펼치고, 특급 호텔에 견줄 만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이셔틀은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지난해 '전북방문의해'를 기념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행한 버스가 발단이 됐다. 서울과 전주를 오가던 이 버스는 올해부터 전국을 누비는 여행 상품으로 변신했다. 현재는 유에스여행사가 운영을 맡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에게만 판매된다. 정원은 36명이고, 영어를 구사하는 가이드가 동행한다.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은 4명 이상 신청할 경우 중국어와 일본어를 할 수 있는 가이드가 추가로 배치된다. 운행 빈도는 해랑이 주 2회, 케이셔틀이 주 1~2회이다. 해랑은 화요일에 '아우라' 코스, 토요일에 '해오름'과 '씨밀레' 코스가 격주로 떠나며, 케이셔틀은 비정기적으로 출발한다. 따라서 케이셔틀 여행 상품을 구입하려면 미리 여행사에 문의해야 한다.

관광 일정

해랑의 대표 상품인 아우라와 케이셔틀은 서울을 출발해 관광으로 유명한 도시를 고루 거친다. 아우라는 2박 3일, 케이셔틀은 4박 5일 동안 진행된다. 해랑의 일정은 약 3개월 주기로 변경되는데, 올해 10월까지 '아우라' 코스는 서울을 출발해 순천과 부산, 경주, 강릉, 태백을 지나는 여정으로 운행된다.

해랑 '아우라' 코스의 첫 목적지인 순천은 올해 10월 20일까지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때문에 선정됐다. 둘째 날에는 최대의 항구도시인 부산의 해운대 동백섬과 아쿠아리움,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도심을 구경한다. 마지막 날에는 강릉 정동진에서 아름다운 해돋이를 감상하고, 태백 시내에서 점심식사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기차역인 추전역에서의 기념 촬영을 끝으로 여행을 마친다. '해오름'과 '씨밀레' 코스는 1박 2일 일정으로 동남부권과 서남부권을 순환한다. 해오름 코스는 서울에서 곧바로 청도로 이동한 뒤 와인터널을 살펴본다. 이후 방문지는 경주, 강릉, 태백으로 아우라 코스와 동일하다. 씨밀레 코스는 첫날 전북과 전남의 인기 여행지인 전주 한옥마을과 곡성 기차마을에 정착한다. 다음날에는 순천에서 생태공원과 정원



박람회 관광하고 귀경한다.

케이셔틀은 외국인에게 추천할 만한 국내의 명소를 대부분 들른다. 첫 날은 백제의 문화가 숨 쉬는 공주, 부여와 전주처럼 역사적인 도시의 문화유산을 거닌다. 둘째 날에는 비엔날레가 열리는 광주의 예술 거리를 산책하고 순천과 여수를 주유한다. 다음날부터는 경상도로 넘어가 진주 축석루와 부산 해운대, 경주 불국사와 안동 하회마을을 돌아본다. 마지막 날에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조선시대 양반 가옥의 전형을 보여주는 강릉 선교장, 국내에서 손꼽히는 명산인 설악산을 찍고 서울로 올라간다.

케이셔틀은 일정이 긴 대신 일부 구간만 참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4박 5일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이틀이나 사흘, 나흘만 여행에 동참해도 무방하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2박 3일 상품은 여수에서의 숙박까지 포함된다. 해랑도 첫날 서울역 외에 수원역, 서대전역, 대전역, 익산역 등 주요 기차역에서 출발할 수 있다.

해랑과 케이셔틀의 관광 일정은 사실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다. 상당 부분이 겹치는 데다, 명성이 자자한 장소들을 순회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케이셔틀, 출국 일자가 촉박하다면 해랑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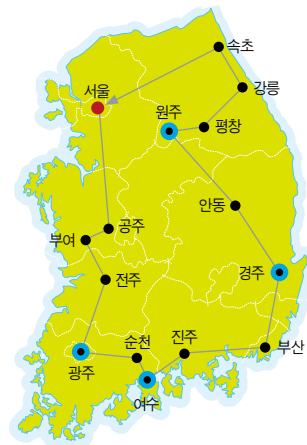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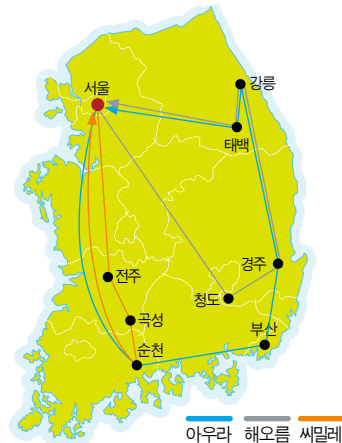
해랑 일정

날짜	아우라(전국 일주 3일)	해오름(동남부권 2일)	씨말레(서남부권 2일)
1일	서울 출발(09:00) → 순천 도착(13:00) → 순천만 생태공원, 세계정원박람회 → 순천 출발(20:00)	서울 출발(08:30) → 청도 남성현역 도착(12:30) → 청도 외안터널 → 청도 출발(14:30) → 경주 도착(16:50) → 경주 시티투어 → 경주 출발(21:15)	서울 출발(08:20) → 전주 도착(11:40) → 한옥마을 → 전주 출발(15:30) → 곡성 도착(16:20) → 레일바이크나 증기기관차 체험 → 곡성 출발(20:00)
2일	부산 해운대 도착(07:30) → 동백섬, 아쿠아리움 → 해운대 출발(14:10) → 경주 도착(15:30) → 경주 시티투어 → 경주 출발(21:15)	아우라 3일과 코스는 동일하나, 서울 도착 시간은 오후 6시로 1시간 늦음.	순천 도착(07:10) → 순천만 생태공원, 세계정원박람회 → 순천 출발(14:20) → 서울 도착(18:50)
3일	강릉 정동진 도착(일출 30분 전) → 하슬라아트월드 → 정동진 출발(09:40) → 태백 도착(11:00) → 중식 → 태백 출발(12:30) → 추진역 기념 촬영(12:40) → 서울 도착(17:00)		

케이셔틀 일정

날짜	일정
1일	서울 출발(08:30) → 공주 무령왕릉, 공산성(10:00~12:20) → <부여 백제문화단지>, 부소산성, 구드레유람선(13:00~15:30) → 전주 한옥마을(16:50~18:00) → 광주 호텔 도착(19:30)
2일	출발(09:30)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홍보관, 예술의 거리(10:00~10:40) → 순천 송광사(12:00~14:00) → <순천만 세계정원박람회(14:50~17:20)> → 여수 어시장, 산업단지(18:00~19:30) → 호텔 도착(20:00)
3일	출발(08:00) → 진주성, 축석루(09:30~10:30) → 부산 김해공항 경유(11:20) → 부산역 경유(12:10) → 자갈치시장, 국제시장(12:30~15:00) → 해운대(15:40~17:00) → 경주 호텔 도착(18:30)
4일	출발(08:00) → <석굴암(08:30~10:00)> → 불국사(10:30~13:00) → 안동 하회마을(15:30~17:00) → 원주 호텔 도착(20:00)
5일	출발(08:00) →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09:30~10:30) → <모노레일 탑승(10:30~11:00)> → 강릉 선교장(11:30~13:30) → <속초 설악산(14:30~16:30)> → 서울 도착(20:30)

< > 표시는 선택관광.



프라도호텔, 여수 디오선리조트, 경주 콩코드호텔, 원주 인터불고호텔은 모두 특급으로 분류된다. 호텔에 행사가 있어서 객실에 여유가 없을 때는 동급의 다른 호텔이 제공된다. 2인 1실 기준이며, 1인실 사용 시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굳이 숙박시설을 논하지 않으면 해랑은 '특별함', 케이셔틀은 '다양함'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다. 해랑 열차에 탑승하면 멀컥거리는 객차에서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잠자리에 들 수 있고, 케이셔틀을 이용하면 여러 도시의 나이트라이프를 체험할 수 있다.

식사는 두 여행 상품을 견주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랑은 식사가 전부 주어지지만, 케이셔틀은 조식만 나오고 중식과 석식은 개별적으로 먹어야 한다. 해랑의 식사는 정차한 지역의 유명한 식당에서 별미를 맛보는 형식이다. 외국인으로서 맛과 서비스에서 합격점을 받은 식당을 힘들이지 않고도 찾아가는 셈이다. 또 열차 내 식당차에서는 간식과 과일, 맥주와 와인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케이셔틀의 조식은 호텔 뷔페이다. 점심식사와 저녁식사는 식당이 몰려 있는 곳에서 이뤄진다. 가이드가 지역의 맛있는 음식과 식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선택은 여행자의 몫이다.



해랑과 케이셔틀의 숙소와 식사

구분	해랑	케이셔틀
숙소	스위트룸, 디럭스룸, 패밀리룸으로 구분.	프라도호텔, 디오선리조트, 콩코드호텔, 인터불고호텔.
식사	지역 유명 요리 위주로 구성. 아우라의 경우 꼬막 정식, 한정식, 새송이 순두부 전골, 연탄불 한우구이 등 제공.	조식만 호텔식 제공. 중식, 석식은 개별적으로 구매.

가격

여행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준거는 결국 '가격'이다. 해랑의 '아우라'와 케이셔틀의 2박 3일 상품을 비교하면 해랑이 월등히 비싸다. 아우라의 디럭스룸은 195만 원, 스위트룸은 232만 원, 3명이 이용하는 패밀리룸은 239만 원이다. 하지만 케이셔틀은 349달러, 약 39만 원에 불과하다. 해랑은 요금에 객실 기준으로 책정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가격 차이가 상당한 편이다.

그러나 해랑은 개별적으로 돈을 쓸 일이 거의 없는 '올 인클루시브' 상품인 반면, 케이셔틀은 이래저래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다. 우선 케이셔틀은 점심식사와 저녁식사를 별도로 구매해 먹어야 한다. 또 부여 백제문화단지, 순천만 세계정원박람회, 석굴암, 알펜시아 리조트 모노레일,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는 선택관광이어서 희망자에 한해 3천~1만6천 원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케이셔틀에서는 매일 5만 원 정도의 개인 비용이 필요하다.

케이셔틀의 4박 5일 상품은 549달러이다. 15개 구간의 버스 탑승권, 4박 숙박, 조식, 가이드, 일부 입장료가 포함된 가격으로서는 합리적이다. 해랑은 일부 여행자가 가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만족도와 판매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해랑과 케이셔틀은 어린이에게 적용되는 할인 혜택도 다르다. 해랑은 48개월 미만 유아만 무료일 뿐, 만 4세가 지나면 성인과 요금이 동일하다. 케이셔틀은 만 2~12세 어린이의 경우 객실에서 추가 침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만 25%가 할인된다. Y문의 해랑 www.railcruise.co.kr, 080-850-7749, 케이셔틀 www.k-shuttle.com, 1899-2508

해랑과 케이셔틀의 상품 가격

해랑		케이셔틀		
아우라	80만~116만 원	1박 2일	239달러	2박 3일 349달러
해오름/씨말레	51만7천~77만 원	3박 4일	459달러	4박 5일 549달러

1인 성인 기준, 8월 26일 기준 1달러 = 1113원



숙박과 식사

해랑은 국내 유일의 침대 열차이다. 그래서 열차가 곧 호텔이다. 객실은 스위트룸, 디럭스룸, 패밀리룸으로 나뉜다. 스위트룸은 해랑에서 가장 좋은 객실로 킹사이즈 침대와 평면 TV, DVD 플레이어, 화장실, 샤워 부스, 탁자와 의자 등이 갖춰져 있다. 디럭스룸은 침대와 화장실로 구성되며, 가족 탑승객을 위한 패밀리룸은 2층 침대가 놓여 있어서 3~4명이 함께 묵을 수 있다.

케이셔틀은 광주, 여수, 경주, 원주의 지정 호텔을 이용한다. 광주